



신윤복 작 '미인도'

국내 전시회 사상 국보와 보물이 최대 규모로 출품되는 전시회가 열린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정된 국보와 보물(157건) 중 이동이 어려운 건축 문화재와 중량이 무거운 문화재를 제외한 83건 196점이 공개된다.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새 보물 납시었네-신국보보물전 2017~2019'를 21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들에게 선현들의 지혜가 담긴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역대 최대 국보·보물전

'새 보물 납시었네-신국보보물전 2017~2019'



'삼국사기1-3-고구려본기'

문화재청 - 국립중앙박물관
'미인도' '조선왕조 실록' 등
21일~9월27일 196점 공개
홈페이지서 온라인 감상도

무엇보다 중앙박물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온라인 전시를 병행해,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주요 문화재 30건의 온라인 전시도 다음 갤러리에서 진행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문화재 대여기관만도 재단, 사찰 등을 포함해 총 34곳에 달할 만큼 대규모다.

전시는 3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1부 '역사를 지키다'에서는 기록 유산을 소개한다. '삼국사기' (국보 제322-1호)와 '삼국유사' (국보 제306-3호), '조선왕조실록' (국보 제151호) 등이 출품된다. 실록이 지닌 위대한 가치를 전하기 위해 실록의 편찬에서 보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아울러 조선 시대 인쇄 문화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송조표전종류 권6~11' (보물 제1989호), 왕실 행사 기록화 '기사계첩' (국보 제325호), 사대부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최석정 초상 및 합' (보물 제1936호) 등도 함께 소개한다.

2부 '예술을 펼치다'에서는 미의식이 담긴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 고려 초기 청자 제작을 보여주는 '청자 순화4년(淳化四年)명 향아리' (국보 제326호), 고려 상형정자의 정수인 '청자 투각연당초문 북꽃이' (보물 제1932호) 등 도자공예의 뛰어난 기술과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고려청자를 볼 수 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안내하는 실경산수화와 풍속화도 만난다. 실경산수화의 대가 정선의 '정선 필 풍

악내산총람도' (보물 제1951호)를 비롯해 조선 시대 평범한 일상을 담은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 (보물 제1987호), 조선시대 사람들의 이상향을 그린 8.5m의 대작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 (보물 제2029호) 등도 출품됐다.

특히 여인의 아름다움이 섬세하게 묘사된 '신윤복 필 미인도' (보물 제1973호), 김홍도의 원숙한 기량을 보여주는 '김홍도 필 마상청영도' (보물 제1970호) 등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보물 22건도 전시된다. (간송재단 소장 서화류의 경우 3주 단위로 교체 전시된다)

불교문화재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있다. 3부 '염원을 담다'에서는 오랜 세월 한국인과 함께해 온 불교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조명한다. 개인과 왕실의 안면을 담은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사리를 봉안하는 일체의 장치) 중 가장 오래된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국보 제327호), 불경 인쇄를 위해 세간 '묘법연화경 목판' (보물 제1961호)이 출품됐다. 또 '월인천강지곡 권상' (국보 제320호), '고려 천수관음보살좌상' (보물 제2003호) 등이 소개된다.

이번 전시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단위로 관람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배기동 중앙박물관장이 직접 국보와 보물을 설명하는 영상도 공개하며 온라인 강연회도 3회(7월 29일, 8월 5일·13일) 마련했다.

한편 출품 전시품 가운데 10선을 온라인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국보와 보물로 재현해보는 '새 보물 챌린지' 행사도 진행한다. 매주 월요일 3명의 당첨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득신 작 '풍속도화첩1(야묘도추)'

22년만에 풀어놓은 '나만의 풍경'

최만길 개인전, 30일까지 갤러리 자리아트

최만길 갤러리 자리아트 대표는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지만 조각가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갤러리를 운영하면서는 좀처럼 작품 제작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는 최근 수십년 만에 집중적으로 붓을 들었고 회화 작품으로 첫 전시를 마련했다.

지난 1998년 조각작품으로 3번째 개인전을 가진 뒤 무려 22년만에 자신의 작품을 내놓는 자리아트.

최만길 작가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갤러리 자리아트에서 열린다.

'나만의 풍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100여 대작 등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작들은 한지 위에 펼쳐진 색과 선의 다채로운 조합을 통해 추상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다.

조각가 시절부터 남이 쓰지 않는 나만의 재료와 기법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모색해왔던 최 작가는 회화 작업에 몰두하면서도 역시 재료 수집과 개발에 공을 들였고, 직접 판 캔버스에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냈다.

부조와 서양화 느낌이 어우러진 작품들은 학원에서 버려지는 서예 연습작품을 가져와 화폭에 붙이고 그 위에 다채로운 색감의 아크릴 물감을 발라 먹으로 쓰인 한자 글씨체와 자연스레 어우러지게 했다. 마치

지나거나 느낌이 나는 흰 선들은 화면에 리듬감을 부여하며 색다른 느낌을 준다.

후배 작가들을 키우기 위해 예술의 거리에 자리아트를 연 게 2006년이였다. 갤러리에서 늘상 선배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고 한국화협회회 정회원으로 작가들과 함께 국내외 아트페어에 나가 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그림'에 대한 갈증이 생겼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불편해진 몸으로는 힘이 드는 조각 작업을 오래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번에 나온 작품은 올해 집중적으로 작업한 것들이다. 뒤늦게 그림 그리는데 재미가 붙어 작업에 몰두했던 최 작가는 '정말 오랜만에 회화 작업을 하면서 큰 성취감을 느꼈다'며 '나만의 풍경을 찾아가는 지금이 내 작품 활동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다양한 실험과 작업활동을 통해 가능하면 매년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자리아트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대학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한 최 작가는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조선대 외래교수 등을 역임했다. 문의 062-225-400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나만의 풍경'

은암미술관, 11월까지 '모도리 오색공방'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이 가족 공예 등 다양한 공예를 배울 수 있는 '4차 산업에 필요한 공예-모도리 오색공방'을 시작한다. 2020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프로그램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모두 5차례 열릴 예정이다.

'모도리 오색공방'은 주말을 이용해 비즈공예, 비누공예, 도자공예, 캘리그라피, 가죽공예를 전문 공예 강사에게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25일 열리는 첫 프로그램은 비즈공예인 '포인트 비즈와세서리'다. 무더운 여름철 보기만 해도 시원한 진주와 크리스탈 비즈나 바이러스 예방으로 필수품이 된 마스크에 나의 취향대로 비즈 줄을 달아 분실 예방과 미적인 기능을 더하고 다양한 연출을 해보는 프로그램이다. 강사는 2013 한국문화예술연합회 비즈공예부부 공로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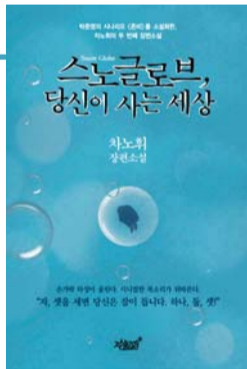


수상하고 (사)한국문화예술연합회 비즈, 리본분과 회장을 역임한 김별씨다. 앞으로 일정은 비누공예(8월8일), 도자공예(9월19일), 캘리그라피(10월 24일), 가죽공예(11월21일)이다. 강의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참여비용은 무료다. 문의 062-226-66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차노휘 '스노글로브, 당신이 사는 세상' 펴내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시나리오 '준비' 소설로 재구성



상황 디테일을 덧붙이기도 했고 캐릭터에 대해 고민하며' 지난한 시간을 보냈다.

소설은 사방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기자회견장에서 강한필이 새로운 신경물질 '마나사 에피네프린'을 공개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치료 불가능했던 허반신 마비도 불과 1분 안에 치료 가능한 약물의 발견에 환호와 박수가 이어진다. 모든 것이 성공적인 한필은 애인인 영서와의 첫 휴가에 들뜨지만 어딘가 모르게 식연치 않다. 휴게소 벤치에 잠시 앉아 있는 한필의 귓가에 갑자기 환청처럼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 "그건 네가 아는 사실과 달라"라는.

추리와 반전이 뒤섞인 서사는 결국 삶에 대한 물음으로 수렴된다. 우리는 과연 스노글로브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밖에서 살고 있는지 라고.

한편 차 작가는 소설집 '기차가 달린다', 장작론 '소설창작 방법론과 실제', 여행에세이 '자유로운 영혼을 위한 시간들'을 펴냈으며 광주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나리오 '준비' (원작 박준영)를 소설로 재구성한 장편이 출간됐다.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한 경우도 더러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 관심을 끈다. 주인공은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얼굴을 보다'로 등단한 차노휘 작가. 차 작가는 최근 '스노글로브, 당신이 사는 세상' (지식과감성)을 펴냈다.

작가의 두 번째 장편인 이번 작품은 꿈과 현실, 수조의 안과 밖 대비를 통해 이야기의 반전을 극대화한다. "투명한 둥근 유리 안에 축소 모형을 넣은 장난감"을 일컫는 스노글로브라는 작품 제목은 현실과 그 너머의 세상 등 다양한 의미를 상징한다.

차 작가가 시나리오를 받은 것은 지난 2013년이였다. 이후 각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추리기법과 반

전의 묘미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

"원작자가 있는 시나리오를 소설로 개작하는 것 또한 아주 예민한 작업이다. 정서가 비슷해야 하고 원본을 얼마나 살리고 죽이느냐에 따라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신경이 상당히 날비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작품이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소설화했을 때, 내 방식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아예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차 작가는 시나리오가 자신의 작품 정서와 비슷하고, 시나리오를 건네준 이 또한 순수한 열정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작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날 때마다 꺼내서 문장을 다듬고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